

## 뮤지컬

Musical comedy의 준말로, 19세기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발달했다. 음악 특히 노래를 중심으로 만드는 음악극으로 연기, 쇼, 춤 등이 음악과 조화를 이루는 종합 공연물이다. 첫 작품은 1892년 작품 거리에서(In town)이다. 연극 요소가 강해 대사가 있고 음악성은 물론 정확한 발음으로 노랫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중적인 음악과 연출이 필요하다. 출연자는 배우라고 부르며, 음향 장치는 마이크를

쓰고 뮤지컬적 발성으로 노래한다. 춤이 주요 구성 요소라 율동성이 풍부하며, 배우(대중가수, 영화배우, 연극배우 등)가 노래와 춤 그리고 연기를 모두 맡는다. 참고로 오페라 출연자는 가수라고 부르며, 고전주의 음악에 근거해 마이크를 쓰지 않은 채 오페라 창법으로 노래한다.

### ○ 뮤지컬의 종류

기준	종류	특징	
내용	뮤지컬 트래지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인 비극 양식을 취하는 연기 기반의 뮤지컬</li> <li>• 진지한 표현과 주제의 작품을 통칭</li> </ul>	
	뮤지컬 멜로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몰입을 유도하는 복잡한 스토리</li> <li>• 선인, 악인 등 전형적인 캐릭터</li> </ul>	
	뮤지컬 판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상적인 소재와 장소, 기이한 캐릭터 등장</li> </ul>	
	뮤지컬 페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화를 소재로 한 뮤지컬</li> </ul>	
판권	수입 뮤지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작품을 그대로 수입하는 공연</li> <li>• 출연진과 제작진이 모두 외국인이며, 계약에 따라 일부 국내 인력의 참여도 가능</li> </ul>	
	라이선스 뮤지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과 창작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음</li> <li>• 외국 제작팀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국내 기술진이 스태프를 맡고, 국내 출연진이 합류하여 공연</li> </ul>	
		레플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제품이란 뜻으로, 제작사가 제시한 매뉴얼대로 제작해야 함</li> <li>• 원작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연 현지의 정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li> </ul>
		논레플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이 가능한 경우 현지의 정서에 맞추어 잘 수정하면 원작보다 더한 성공작을 만들 수도 있음</li> </ul>
창작 뮤지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인력이 대본, 음악, 안무를 모두 담당</li> </ul>		

### ○ 악단석의 연주자들

뮤지컬 전용 극장에는 무대 바로 앞에 관현악단을 위한 악단석이 있다. 연주자들은 무대 밑에 따로 마련된 이 연주석에서 연주를 한다. 일반 극장에서 뮤지컬을 공연할 때는 녹음된 반주 음원을 사용하기도 한다.



## 오페라

오페라(Opera)라는 단어는 작품을 뜻하는 라틴어 Opus의 복수형이다. 16세기 말엽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음악 연극의 흐름을 따르며, 노래를 중심으로 독창, 중창, 합창, 관현악을 사용하고, 때론 발레도 참가하는 음악극이다. 오페라의 첫 작품으로 받아들이는 작품은 1598년경에 쓰인 야코포 페리의 '다프네'이지만 전하지 않고, 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오페라는 1600년경에 작곡된 야코포 페리의 '에우리디

체'이다. 그리고 오늘날 공연되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은 1607년경에 작곡된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이다. 독창은 보통 아름다운 서정적인 가락인 아리아와 이야기하듯이 부르는 레치타티보로 구분한다. 중창은 주로 대화의 부분으로 쓰이며, 합창은 군중이 노래한다. 관현악은 노래 반주와 장면의 분위기를 강조하며, 서곡 또는 전주곡을 연주하여 극 전체의 성격을 암시한다.

### ○ 오페라 용어집

기준	내용
<b>그랜드 오페라</b> Grand ope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기에 특히 파리 오페라를 중심으로 상연되던 대규모의 오페라</li> <li>• 주로 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거창한 무대 장치를 써서 장대한 장면과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li> </ul>
<b>오페라 부파</b> Opera buf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기의 희극적이고 대중적인 오페라</li> <li>• 오페라 세리아의 반대어로, 기존의 오페라(오페라 부파 등장 이후 오페라 세리아라고 구분됨)의 내용과 형식이 심각하고 인위적이었기 때문에 친근한 오페라를 원한 대중의 마음에 부응한 것이 오페라 부파이다.</li> </ul>
<b>오페라 세리아</b> Opera se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리스신화나 고대의 영웅담을 소재로 한 엄숙하고 비극적인 이탈리아 오페라</li> </ul>
<b>오페라 코미크</b> Opera comiq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기 후기 프랑스의 희극적 오페라</li> <li>• 익살스러운 오페라란 뜻이지만, 희가극의 총칭인 영어의 코믹 오페라와는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희극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대사가 있는 오페라는 오페라 코미크라 칭했다.</li> </ul>
<b>오페레타</b> Operet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기 후반에 발달한 대중적인 소형의 오페라</li> <li>• 극의 진행은 대사(음악 없는 대화) 위주이며, 여기에 가창이나 무용이 들어간다.</li> </ul>
<b>징슈필</b> Singspi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기 후반 이후 독일에서 성행한 민속적인 연극 형태</li> <li>• 독일어로 노래의 연극이라는 뜻으로, 이름 그대로 노래가 풍부하게 삽입되어 있고, 희극적 내용을 지닌 것이 특색이다.</li> </ul>
<b>벨칸토</b> Bel can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기와 19세기 이탈리아의 성악 양식</li> <li>• 표면적인 의미는 아름답게 노래 부르기로 악구를 부드럽게 연결하고 음악을 아름답게 소리 내는 기법을 강조했다.</li> </ul>
<b>콜로라투라</b> Coloratu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19세기 오페라의 아리아 등에 즐겨 쓰인, 빠른 패시지나 트릴 등에 의해 기교적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선율 또는 그 양식</li> </ul>

### ○ 4성부와 오페라의 배역

<b>소프라노</b>	화려하고 기교적인 음색으로 주로 오페라 여주인공이 맡아 부른다.
<b>알토</b>	안정적인 음색으로 주로 나이 많은 부인이나 하녀 등의 조역이 맡아 부른다.
<b>테너</b>	높은 음역대로 왕자 등 오페라에서 남주인공이 맡아 부른다.
<b>베이스</b>	낮은 음역대로 왕, 나이 든 남자, 악당 등의 조역이 맡아 부른다.